

도시빈곤가계의 소비박탈유형에 따른 소비박탈수준의 비교 : 인천시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Level of Consumption Deprivation by the Patterns of Consumption
Deprivation of Urban Poor Households in Incheon, Korea

인하대학교 소비자동학과
교수 윤정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춘

Dept. of Consumer, Child, & Family Studies, Inha Univ.

Professor : Jung-Hai Yoon

Dept. of Consumer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Kee Choon Rhee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연구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V. 결과와 논의 |
| III.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 VI. 결 론 |
|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patterns of consumption deprivation and to compare the level of consumption deprivation by them.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data on 563 households in the city of Incheon collected by the researchers through interview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and crosstabs. Four clusters were classified: 'Overall Satisfied Pattern (OSP)', 'Food Satisfied with Others Deprived Pattern (FS-ODP)', 'Food Extremely Deprived with Housing Satisfied Pattern (FED-HSP)', and 'Housing Extremely Deprived with Food Deprived Pattern (HED-FDP)'. Those in FED-HSP tended to be old aged, and those in HED-FDP tended to be urban unstable workers. The results imply that welfare policy for urban poor households should be

differentia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ption of each pattern of consumption deprivation.

I. 문제의 제기

최근 30년간 한국경제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실질국민총생산이 약 7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월평균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절대빈곤층은 1990년도 현재 전체가계의 10.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¹⁾ 또한 월평균가계소득이 전체가계의 월평균가계지출의 60%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대빈곤층도 1989년말 현재 24.1%에 달하고 있고 그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이와같이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빈곤층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절대빈곤문제는 상당한 정도로 해결되었거나 앞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종래의 고도성장기 때에 결과된 각종 경제질서·제도·조직의 낙후와 왜곡이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소득과 부와 기회의 불균형과 불평등”(박세일 1990: 2)을 초래했다. 도시빈곤가계의 관심범위는 피구홀최극빈층인 절대빈곤층 뿐만아니라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할 여유가 없는 ‘일하는 빈민’에 해당되는 상대빈곤층까지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도시빈곤가계의 소비수준에 관하여는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및 주거결핍에 대한 가정학의 연구(박정희 1992; 윤정혜 1994), 노동력재생산과 최저생계비 계측과 관련된 노동경제학의 연구(이정우·조우현 1991), 계층별 생활양식에 관한 사회계층론의 연구(백옥인 1994, 1991; 홍두승·김미희 1988) 등이 행해져 왔다. 도시빈곤가계

의 범위를 상대빈곤층까지 확대시켜 보려고 한다면 위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경제학의 연구는 도시근로자만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층간의 상대적 비교는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내용보다는 소비지출규모만을 중심으로 소비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가정학과 사회계층론의 연구는 소비수준의 계층간 상대적 비교는 하고 있으나, 주로 소비지출규모의 비교에 그치고 있으며 소비내용의 질적인 비교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도시빈곤가계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비박탈의 형태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빈곤의 원인도 절대빈곤층과 상대빈곤층이 다를 것이며, 가족생애주기 등에 따라서도 가계의 소비요구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계의 소비생활은 식료품·의류·주거·가구집기·보건의료·가족활동·교육 등과 같이 다양한 소비범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소비박탈수준 또는 개별소비범주의 박탈수준만으로는 다양한 소비생활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노년기가계는 보건의료 박탈이 심각할 수 있고 중년기가계는 교육 박탈이 심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락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범주의 소비박탈수준간에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소비박탈 유형을 추출함으로써 소비의 유기적 관계를 밝힐 수 있다.

한편 최근 빈곤연구자들은 빈곤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서 최소한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현재의 공적부조수준이상으로 “소득·의료·주거·고용·교육·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민

1) 1990년도 대도시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359,717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109).

생활 최저선”이 확보되어야 함을 국민의 복지권 보장의 차원에서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조홍식 1996: 13-14). 도시가계의 필수소비항목순위를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생활 최저선 설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1990년대의 한국 도시빈곤가계의 소비박탈유형을 분류하고, 추출된 소비박탈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소비 특성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밝히고, 영국의 필수품인지율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 도시가계의 필수소비항목의 순위를 비교·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박탈과 소비박탈수준

가계는 가계원의 경제적 복지를 추구할 목적으로 형성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Bryant 1991). 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가계원이 실제로 경험하는 생활수준 또는 효용의 정도이다.

상대적 박탈은 한 사회의 모든 집단과 계층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양식이 박탈된 상태로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다. 다운센드의 정의에 의하면 상대적 박탈은 “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용가능한 식료품·의류·주거·가구집기·작업·환경·거주의 조건과 설비 등과 같은 물리적 기준이 결핍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고용·직업·교육·오락·가족의 활동과 관계 및 사회의 활동과 관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이다(Townsend 1979: 413).

소비수준을 생활수준의 주요 부분으로 개념화한 데이비스(Davis 1945)는 “생활 수준 또는 내용은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한 실재로서, 요구와 욕망에 관련하여 소비·작업조건·재산·자유·“분위기” 그리고 그것들의 균형 또는 조화의 복합적인 결합”이

며, 소비수준은 일정기간동안 개인 또는 집단이 사용한 비내구재, 내구재와 반내구재, 인간서비스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또한 소비지출이 소비수준의 신뢰성있는 지표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소비지출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내구재와 반내구재의 소비와 질적 변화, 분배적인 측면 등 교환에 포함되지 않은 소비의 요소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 박탈 개념을 이용하여 소비수준을 측정한다면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과 소유, 소비의 질의 비교, 분배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소비박탈을 “내구재·반내구재·비내구재·서비스의 사용, 내구재·반내구재의 소유, 사회적 참여의 세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용가능한 식료품·의류·주거·가구집기·거주환경·보건 의료·가족활동·교육의 8개 소비범주에서 물질적 기준과 사회적 참여가 박탈된 상태”로 정의하고(윤정혜·이기준 1994), 소비박탈수준을 “한 사회의 구성원이 누리는 평균적인 소비생활양식 또는 소비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2. 소비박탈유형

우리나라의 상대빈곤가계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비박탈의 형태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절대빈곤층과 상대빈곤층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절대빈곤층은 연로, 질병, 불구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수단이 전혀 없어서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된 가계이다.²⁾ 이에 비하여 상대빈곤층은 근로능력이라고 하는 생계유지수단은 있으나 취업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가계소득이 소득 순으로 하위의 일정비율에 있거나(순수 상대빈곤), 국민의 평균소득 또는 평균소비의 절반 또는 일정 비율에 미달되는

2)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계는 모두 절대빈곤층으로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지예산이 부족하여 그중의 일부만이 공적부조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적부조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계도 절대빈곤층에 속한다.

(유사 상대빈곤) 가계이다. 상대빈곤층은 주로 임시고·일고 등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노동자 또는 노점상·행상 등의 영세자영업자로 구성된 불안정취업층이 포함되는데, 이들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윤진호 1990).

가족생애주기 등에 따라서 가계의 소비요구가 다르다. 예를 들어, 노년기가계는 보건의료 소비박탈이 심각할 수 있고 중년기가계는 교육 소비박탈이 심각할 수 있다.

소비박탈을 소비범주 또는 소비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은 역설적인 가계의 소비상태를 설명하는 데, 특히 번영과 박탈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익하다. 예컨대, 몇 가지 소비범주의 소비박탈을 가정할 경우 어떤 사람은 복합박탈(multiple deprivation)을 경험할 것이며 다른 사람은 단일박탈(single deprivation)만을 경험할 것이다. 이처럼 몇 가지 소비범주 또는 소비항목으로 소비박탈을 구분하면 현실의 복잡다단한 소비박탈을 논리적이고도 예측가능하게 분석할 수 있다. 식료품, 주거, 보건의료, 교육 등 상이한 형태의 소비박탈을 분석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소비박탈유형은 많은 역설을 포함할 것이다. 이를테면, 일부 소비범주가 박탈된 사람들이 다른 소비범주에서는 관찰자가 예측한 상태보다 덜 박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탈을 한 사람의 전체 생활양식의 어두운 측면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단일박탈에 대한 어떤 전문화된 형태도 가급적 더 일반적인 맥락으로 설명되어야 한다(Townsend 1987: 127-29).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소비의 질적 분석을 하여 미국가계의 소비패턴의 구조를 밝힌 대표적 연구로는 손상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소비패턴이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한 측면이며 생활표준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서 쉽게 변하지 않는 항상적 특성을 가지며, 집단적·사회적 현상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미국가계의 소비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집락분석을 사용하여 소비패턴의 구조를 실증분석한 결과, 주거지배적 소비유형, 온건균형적 소비유형, 개인교통지배적 소비유형, 건강 및 가내필수재

강조 소비유형, 사회적 강조 소비유형의 다섯 개의 소비유형을 추출하였다. 특히 주로 저소득이며 임차가계이거나 가구주가 고령인 가계가 주거지배적 소비유형과 건강 및 가내필수재 강조 소비유형이었다(Cha 1991; 손상희 1993).

3. 도시가계의 필수소비항목의 소비박탈 순위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빈곤선 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영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있었다(Walker 1987). 영국의 런던 위켄드 텔레비전(LWT)은 1983년 5월에 16세이상의 성인 1,17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오늘날 영국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구성하는 것(필수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가”를 조사하여 35개 소비항목을 국민이 합의한 필수품지표로 결정했다(Mack and Lansley 1985). 국민이 합의한 필수품지표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민생활 최저선의 구체적인 기준의 일부가 된다.

III.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앞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연구문제

P1. 각 소비범주의 소비지출비중을 가중치로 준 소비박탈수준을 기준으로 소비박탈유형을 분류할 경우, 소비박탈유형은 몇 가지로 뚜렷이 구분되는가?

P2. 각 소비박탈유형은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소비 특성을 가지는가?

P2-1. 소비박탈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떻게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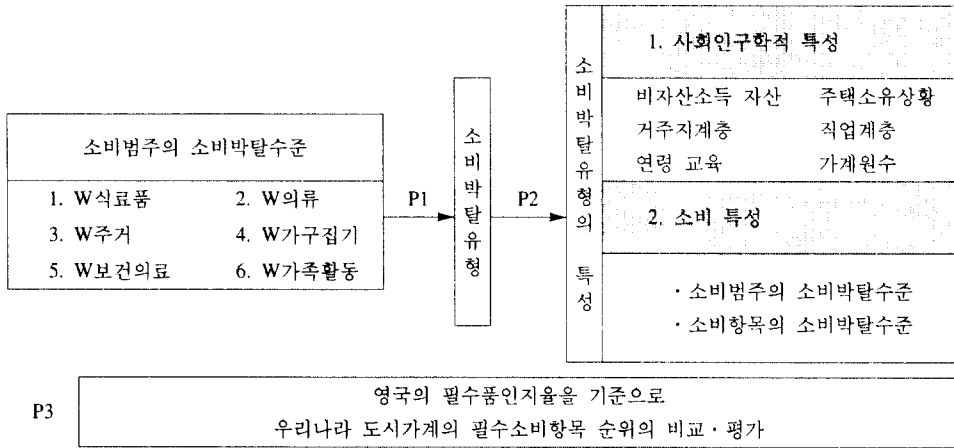
P2-2. 소비박탈유형별 소비범주별 소비박탈수준과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은 어떠한가?

P3. 영국의 필수품인지율 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영국(전국)과 한국(인천)의 필수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은 어떻게 다른가?

2. 연구모형

위의 연구문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환경에 대하여 탐색조사를 한 후, 1991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빈곤층의 30가계와 중산층의 30가계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다음, 10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30명의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방법

훈련된 조사원들이 면접조사를 행하여 602부의 질문지를 수집하였다. 그 중에서 56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1. 자료

(1) 표집설계

표본의 크기는 602가계이며, 빈곤층과 중산층의 비율은 2 : 1로 한다. 빈곤층의 조사 모집단은 인천시의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1991. 8)'에서 지정된 75개 지역이고, 75개 지역 중에서 다단계 규모비례 확률표집에 의해 20개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중산층의 조사 모집단은 인천시의 '행정구별 중간층지구(1991. 10)'인 24개 지역이며, 이들을 전부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가계는 계통표집방식으로 빈곤층의 400가계와 중산층의 202가계를 합한 총 602가계를 44개 조사대상지역에서 추출하였다.

(2) 자료수집과정

빈곤층지역과 중산층지역의 주민, 시장환경, 지역

2. 변수

(1) 소비의 상대적 박탈지표의 구성

소비의 상대적 박탈지표는 타운센드(1987)와 마크와 랜스리(1983)의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탐색조사, 내용타당도검사, 예비조사를 거쳐 8개의 소비범주에서 5개의 소비항목씩 총 40개의 소비항목으로 소비의 상대적 박탈지표를 구성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소비항목의 박탈유무는 비박탈 상태이면 0점, 박탈상태이면 1점을 주어 구했다. 각 소비범주의 소비박탈수준은 5개의 소비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0점부터 5점까지를 주었다.

(2) 집락분석 변수

집락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각 소비범주의 소비박

〈표 1〉 소비의 상대적 박탈 지표(Relative Deprivation of Consumption Index)

소 비 항 목			
<u>식료품</u>	<u>의류</u>	<u>주거</u>	<u>거주환경</u>
1. 쌀(일반미)	1. 정장외출복	1. 전용화장실	1. 범죄안전
2. 우유 등/매일	2. 방한코트	2. 부엌상하수도	2. 하수처리
3. 과일/매일	3. 추동내의2+	3. 기름·가스 난방	3. 도로포장
4. 고기·생선/매일	4. 메이커양말	4. 방수·방습	4. 시장환경
5. 결식안함	5. 메이커신발	5. 방1칸/2인	5. 대중교통
<u>가구집기</u>	<u>보건의료</u>	<u>가족활동</u>	<u>교육</u>
1. 세탁기	1. 치과이용	1. 손님초대/석달	1. 학비채납안함
2. 냉장고	2. 만성환자없음	2. 소풍·여행/년달	2. 참고서·도서
3. 가스레인지	3. 병원치료	3. 신문구독	3. 학원·과외
4. 장롱	4. 운동(등산·탁구)	4. 전축(오디오)	4. 선생님방문
5. 책상·의자	5. 운동·등산용구	5. 사진기	5. 학습지구독

탈수준을 표준화시킨 후, 노총의 표준생계비모형(노총 1992)을 참조하여 소비지출비중을 가중치를 준 W식료품, W의류, W주거, W가구집기, W보건의료, W가족활동의 6개 소비범주의 소비박탈수준이다.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8개 소비범주 중에서 거주환경은 주거에 포함시켜 W주거로 단일화시켰다. 그리고 전체가계의 40%에 해당되는 유치원생부터 중고생 자녀가 없는 가계가 교육 소비항목의 응답이 비해당으로 처리되어 분석에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락분석에서는 W교육 소비범주를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하의 소비박탈유형별 소비특성을 분석할 때는 교육 소비범주도 포함시켰다.

(3) 사회인구학적 변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등간척도로 구성된 비자산소득, 자산, 연령, 교육 가계원수와 명목척도로 구성된 거주지계층, 직업계층, 주택소유상황의 총 8개 변수이며,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3. 분석방법

먼저 소비박탈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6개 소비범

주의 소비박탈수준을 기준으로 집락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사례간의 거리와 유사성은 유클리드 거리자승(squared Euclidian distance)으로 측정하였으며, 두 집락간의 거리와 유사성은 와드 방법(Ward's method)으로 측정하였다. 유클리드 거리자승은 위의 개별 두 변수값의 차이를 제공한 것의 합이다. 그리고 와드 방법은 개별 사례의 변수값과 집락평균간의 편차를 제공한 것의 합으로 측정하여 정보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소비박탈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비자산소득, 자산, 연령, 교육, 가계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단칸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을 행하였다. 그리고 소비박탈유형에 따른 거주지계층, 직업계층, 주택소유상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할표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소비박탈유형에 따른 소비 특성 중에서 소비범주별 소비박탈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단칸의 다중범위검정을 하여 막대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비박탈유형에 따른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은 백분율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가계의 필수소비항목 소비박탈수준 순위를 알기위해서 백분율을 구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제시하였다.

위의 분석을 위하여 SPSS for Windows 6.1을 사용하였다.

〈표 2〉 집락분석 변수와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와 측정방법
집락분석변수	
W식료품	Z식료품 ^a × 38.6 ^b
W의류	Z의류 × 6.9
W주거	Z(주거+거주환경) × 28.2
W가구집기	Z가구집기 × 4.1
W보건의료	Z보건의료 × 6.5
W가족활동 (W교육 ^c)	Z가족활동 × 6.7 (Z교육 × 9.0)
사회인구학적 변수	
비자산소득	모든 가계원의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X천만원
자 산	주택가격+주택의 부동산 가격+전·월세 보증금+금융자산: X백만원
연 령	가구주의 만연령: X세
교 육	가구주의 교육년수: X년
가계원수	소득과 소비를 함께 하는 동거 또는 비동거의 부모와 미혼자녀의 수: X명
거주지계층	1. 빈곤층지역: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자산이 3,000만원 이상인 가계 2. 중산층지역: 저소득층주민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에 거주하고 자산이 3,000만원 미만인 가계
직업계층	1. 중상계층: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대학교수, 연구원, 언론방송인, 고급공무원, 회사중역 신중간계층: 약사, 항공·선박승무원, 교사, 종교인, 예술가, 엔지니어, 일반공무원, 위관급이상군인, 중간관리직·사무직사원 2. 구중간계층: 중소기업사장, 상점·식당·여관·세탁소 주인, 부동산중개인 3. 근로계층: 기능직·고용직 공무원, 점원, 주방장, 이미용사, 생산감독, 숙련공, 반숙련공, 운전사, 공장근로자, 자동차·중장비 수리공 4. 하류계층: 경비원, 청소원, 행상, 노점상, 간병인, 파출부, 배달부, 비숙련공, 가내단순노동 5. 무직
주택소유상황	1. 자가 2. 전세 3. 월세·기타

^a Z식료품: 식료품 소비범주의 소비박탈수준의 표준화된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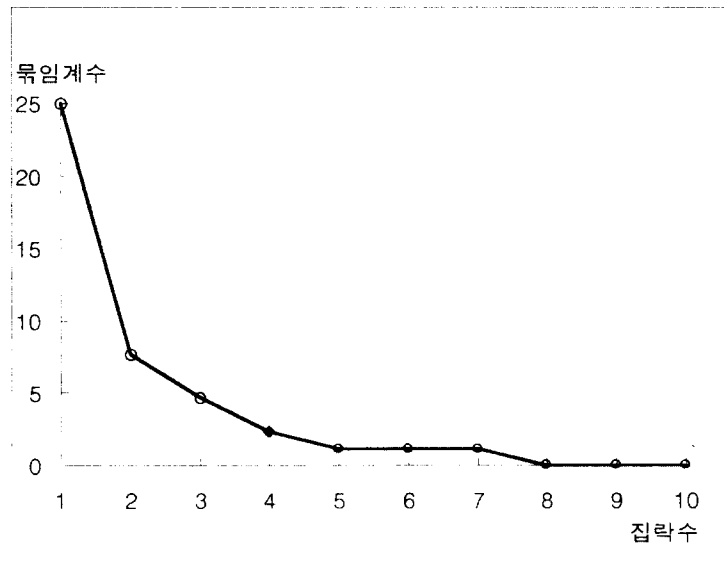
^b 1991년도 7월 현재 노총의 표준생계비모형 중에서 비소비지출과 교통통신비를 제외한 7대소비지출항목의 소비지출비중을 계산하여 가중치를 준 값임.

^c 집락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음.

V. 결과와 논의

1. 소비박탈유형의 분류

6개 소비범주의 소비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준 소비박탈수준을 기준으로 집락분석을 한 결과에서 나온 나무그림(dendrogram)으로부터 소비박탈유형의 집락수와 묶임계수(fusion coefficient)의 관계를 그린 <그림 2>에서 보면, 집락이 4개이상일 때부터 추가적인 집락간의 묶임계수가 점점 작아져서 Y축에 대한 기울기가 평평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집락내의 유사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집락간의 차별성이 뚜렷한 소비박탈유형을 4개로 결정했다.



<그림 2> 소비박탈유형의 집락수와 묶임계수와의 관계

2. 소비박탈유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소비 특성

(1) 소비박탈유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소비박탈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일원분산분석과 분할표분석의 결과를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네 집락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집락1은 소득 232만원, 자산 2억 7천만원, 연령 43세, 전문대이상의 주로 중산층지역에 거주하는 중간계층이다.

둘째, 집락2는 소득 93만원, 자산 2천만원, 연령 41세, 고졸수준의 대부분 빈곤층지역에 거주하는 근로계층이다.

셋째, 집락3은 소득 73만원, 자산 2천만원, 연령 50세, 중졸미만의 대부분 빈곤층지역에 거주하는 근로·하류·무직계층이다.

넷째, 집락4는 소득 73만원, 자산 천백만원, 연령 44세, 고등학교 중퇴의 거의 전부 빈곤층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상황이 가장 불안정한 근로·하

류·무직계층이다.

(2) 소비박탈유형의 소비 특성

소비박탈유형별 소비 특성을 소비범주와 소비항목의 두 수준에서 살펴 보려고 한다.

1) 소비박탈유형별 소비범주의 소비박탈수준

소비박탈유형별로 소비범주의 소비지출비율을 가

〈표 3〉 소비박탈유형별 비자산소득, 자산, 연령, 교육, 가계원수의 일원분산분석

(N = 563)

소비박탈유형 (N)	비자산소득(만원)		자산(백만원)			
	평균(SD)	DMR ^a	평균(SD)	DMR		
집락1 (172)	232.2(205.7)	b	270.2(473.5)	b		
집락2 (136)	93.8 (49.6)	a	19.9 (27.8)	a		
집락3 (96)	73.2 (54.2)	a	20.4 (35.3)	a		
집락4 (159)	73.6 (34.2)	a	10.9 (9.5)	a		
총평균(SD)	126.9(138.7)		93.9(287.0)			
F비(d.f.=3,559)	64.64*		31.22*			
소비박탈유형 (N)	연령(세)		교육(년)		가계원수(명)	
	평균(SD)	DMR	평균(SD)	DMR	평균(SD)	DMR
집락1 (172)	43.0 (9.3)	ab	14.1 (2.6)	d	4.2 (1.0)	c
집락2 (136)	40.8 (9.9)	a	11.7 (3.0)	c	3.7 (1.0)	b
집락3 (96)	50.0 (12.8)	c	8.6 (5.5)	a	3.3 (1.3)	a
집락4 (159)	43.6 (11.7)	b	10.0 (4.6)	b	3.8 (1.1)	b
총평균(SD)	43.7 (11.1)		11.4 (4.4)		3.8 (1.1)	
F비(d.f.=3,559)	12.73*		51.10*		13.82*	

* p < .001

^a a는 a, b, c, d 중에서 최저평균임.

중치로 준 소비박탈수준의 일원분산결과를 막대그림으로 나타난 〈그림 3〉을 보면, 집락1은 ‘전범주 총족형’, 집락2는 ‘식료품총족-기타 박탈형’, 집락3은 ‘식료품 박탈심각-주거 총족형’, 집락4는 ‘주거 박탈심각-식료품 박탈형’으로 네 집락이 뚜렷하게 다른 소비 특성을 보였다.

2) 소비박탈유형별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

소비박탈유형의 소비 특성을 좀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소비범주별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을 〈그림 4〉에서 비교해 보았다.

가. 식료품 소비항목

전체가계의 식료품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은 ‘결식 안함’, ‘쌀(일반미)’, ‘우유 등/매일’, ‘과일/매일’, ‘고기·생선/매일’ 순으로 높아졌다. 소비박탈유형별로 식료품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을 보면, 전체가계의 소비박탈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집락1은 다섯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모두 전체평균보다 낮았으며, 집락2는 ‘고기·생선/매일’을 제외한 네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전체평균보다 낮았다. 이

에 비해 집락4와 집락3는 다섯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모두 전체평균보다 매우 높았다.

특히 ‘식료품 박탈심각-주거 총족형’인 집락3은 다섯 소비항목중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식 안함(지난 일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여 끼니를 거른 적이 없다)’도 11.5%나 박탈되었으며, ‘쌀(일반미)’도 32.3%가 박탈되어 정부미를 먹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유 등/매일’, ‘과일/매일’, ‘고기·생선/매일’은 95%이상 박탈이 될 정도로 식료품 박탈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앞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집락3의 평균 연령이 50세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노인빈곤가계의 식료품 박탈이 심각함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우유 소비항목은 노인들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등 노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식품이기 때문에 ‘살 수 있으나 사먹지 않는 선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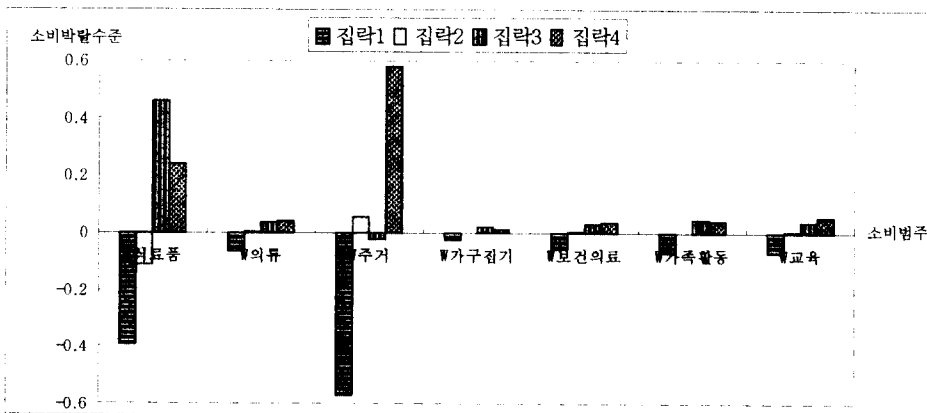
‘주거 박탈심각-식료품 박탈형’인 집락4는 식료품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집락3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면서 집락3과 비슷한 모습이 보였다.

〈표 4〉 소비박탈유형별 거주지계층, 직업계층, 주택소유상황의 분할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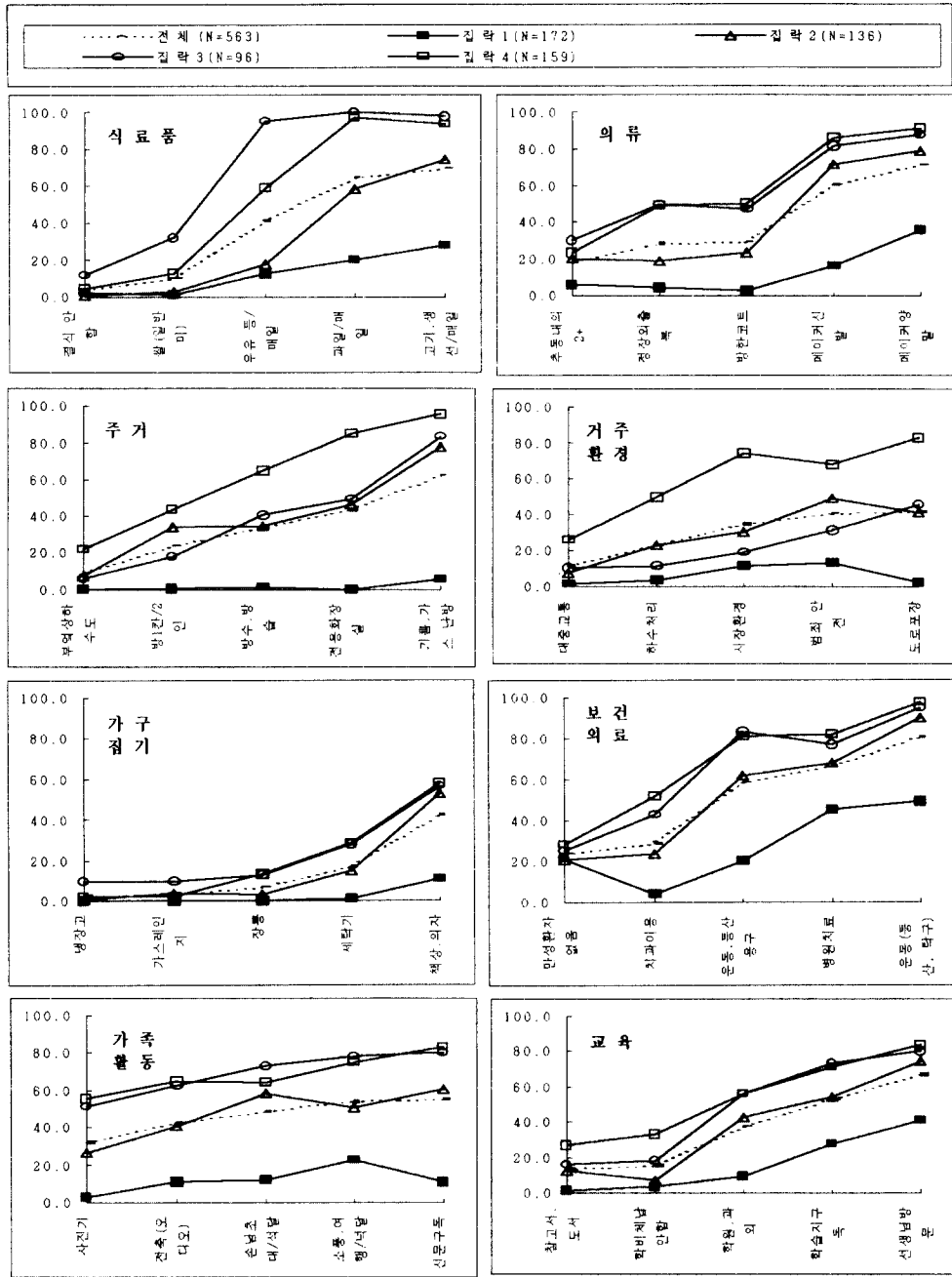
(N=563)

	전 체	집락1 %(N)	집락2 %(N)	집락3 %(N)	집락4 %(N)
거주지계층					
빈곤층 지역	67.5(380)	6.4 (11)	91.2(124)	90.6 (87)	99.4(158)
중산층 지역	32.5(183)	93.6(161)	8.8 (12)	9.4 (9)	.6 (1)
	100.0(563)	100.0(172)	100.0(136)	100.0 (96)	100.0(159)
$\chi^2(d. f. = 3)$		424.49*			
직업계층					
중상·신중간	21.7(122)	52.3 (90)	10.3 (14)	8.3 (8)	6.3 (10)
구중간	13.3 (75)	33.7 (58)	8.1 (11)	4.2 (4)	1.3 (2)
근 로	38.4(216)	13.4 (23)	62.5 (85)	36.5 (35)	45.9 (73)
하 류	17.1 (96)	0	13.2 (18)	26.0 (25)	33.3 (53)
무 직	9.6 (54)	.6 (1)	5.9 (8)	25.0 (24)	13.2 (21)
	100.0(563)	100.0(172)	100.0(136)	100.0 (96)	100.0(159)
$\chi^2(d. f. = 12)$		341.19*			
주택소유상황					
자 가	59.5(335)	91.3(157)	41.2 (56)	50.0 (48)	46.5 (74)
전 세	30.2(170)	8.7 (15)	45.6 (62)	40.6 (39)	34.0 (54)
월세·기타	10.3 (58)	0 (0)	13.2 (18)	9.4 (9)	19.5 (31)
	100.0(563)	100.0(172)	100.0(136)	100.0 (96)	100.0(159)
$\chi^2(d. f. = 6)$		115.94*			

* p < .001



〈그림 3〉 소비박탈유형별 각 소비범주의 소비박탈수준의 막대그림



* X축은 소비항목, Y축은 소비박탈수준임.

〈그림 4〉 소비박탈유형별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

나. 의류 소비항목

전체가계의 의류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은 '추동내의2+' '정장의출복' '방한코트' '메이커 신발' '메이커 양말'의 순으로 높아졌다. 전체가계의 소비박탈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집락1은 다섯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전체평균보다 낮았으며, 집락2는 두 소비항목('정장의출복'과 '방한코트')의 소비박탈수준은 전체평균보다 낮았으나 다른 세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은 전체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이에 비해 집락3과 집락4는 비슷한 정도로 다섯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의류 소비항목 중에서 '메이커 양말'은 집락1도 30% 이상 박탈되어 있으므로 "한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평균적인 소비생활수준"을 나타내는 필수적 소비항목으로 보기에 다소 선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주거 소비항목

전체가계의 주거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은 '부업상하수도' '방1칸/2인' '방수·방습' '전용화장실' '기름·가스난방'의 순으로 높아졌다. 전체가계의 소비박탈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집락1의 소비박탈수준은 모든 소비항목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낮았다.

집락2는 '부업상하수도'를 제외한 네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전체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그리고 집락4는 주거의 모든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전체평균보다 매우 높았다. 따라서 집락4가 '주거 박탈심각·식품·박탈형'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편 집락3은 '부업상하수도'와 '방1칸/2인'의 소비박탈수준은 전체평균보다 약간 낮았으나 다른 세 소비항목은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라. 거주환경 소비항목

전체가계의 거주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은 '대중교통', '하수처리', '시장환경', '범죄안전', '도로포장'의 순으로 높아졌다. 전체가계의 소비박탈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집락1은 다섯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전체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집락3은 '대중교통', '도로포장'을 제외한 세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전체평균보다 낮았다.

<그림 3>에서 집락3의 W주거 소비박탈수준이 표

준화된 평균(0)보다 낮았던 것은 주거의 두 소비항목(부업상하수도, 방1칸/2인)과 거주환경의 세 소비항목(하수처리, 시장환경, 범죄안전)의 소비박탈수준이 전체평균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집락2의 주거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은 전체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범죄안전'의 소비박탈수준만 전체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집락4는 거주환경의 모든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전체평균보다 매우 높아, 이 집락이 '주거 박탈심각·식품·박탈형'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마. 가구집기

전체가계가 가구집기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은 '냉장고' '가스레인지' '장롱' '세탁기' '책상·의자'의 순으로 높아졌다. 집락1은 '책상·의자'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충족되어 있었다. 반면에 집락3은 '냉장고' '가스레인지' '장롱'이 없는 가계가 10%내외 정도 되며, 세탁기도 28% 정도의 가계가 없었다. 가구집기 소비항목 중에서 가장 선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항목은 '책상·의자'인데, 집락2, 집락3, 집락4에서 이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높은 것은 부분적으로 주거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 보건의료

전체가계의 보건의료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은 '만성환자 없음' '치과이용' '운동·등산용구' '병원치료' '운동(등산·탁구)'의 순으로 높아졌다. 집락1의 소비박탈수준은 전체평균보다는 낮지만 '치과이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른 소비범주에 비해서 소비박탈수준이 가장 높은 형태를 보였다. 특히 집락4는 '가족 중에 이가 아프거나 틀니를 해 놓아야 하는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가계가 50%이상으로 '치과이용'의 박탈이 가장 심각했으며, 몸이 아프면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것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집락2, 집락3, 집락4의 경우 68%이상 82%까지 높은 소비박탈수준을 보였다. 집락1에 비해 집락2, 집락3, 집락4는 '운동·등산용구'와 '운동(등산·탁구)'의 소비박탈수준이 60%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여기서 특히 '운동(등산·탁구)'의 소비박탈수준이 집락1도 49%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즐기는 것은 선호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비생활양식의 지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 가족활동

전체가계의 가족활동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은 '사진기' '전축(오디오)' '손님초대/석달' '소풍·여행/녁달' '신문구독'의 순으로 높아졌다. 집락1에 비해 집락3과 집락4는 모든 소비항목의 박탈이 심각했다. 특히 집락3과 집락4는 80% 이상이 '신문구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집락3과 집락4는 '지난 석달동안 어른 또는 어린이의 손님을 초대한 적이 없거나', '지난 녀달 동안 가족과 함께 소풍이나 여행을 간 적이 없는' 경우가 70%내외가 될 정도로 높은 가족활동 박탈을 보였으며, 특히 집락3의 경우 이 두 소비항목의 박탈이 가장 심각했다.

마. 교육

전체가계의 교육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은 '참고서·도서' '학비체납 안함' '학원·과외' '학습지구독' '선생님 방문'의 순으로 높아졌다. 집락1에 비해 집락3과 집락4에서 '학원·과외' '학습지구독' '선생님 방문' 소비항목의 박탈이 심각했으며, 집락4가 집락3보다 교육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더 높았다. 여기서 '선생님 방문'의 소비박탈수준이 집락1도 41%인 점을 고려하면 이 소비항목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비생활양식의 지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상에서 행한 소비박탈유형에 따른 소비범주별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의 비교를 통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이 누리는 평균적인 소비생활양식 또는 소비생활수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소비의 상대적 박탈지표를 평가해 본다면, 40개 소비항목 중에서 식료품 소비항목의 '우유 등/매일'과 보건의료 소비항목의 '운동(등산·탁구)'은 선호의 문제가 있으며, 의류 소비항목의 '메이커 양말'과 교육 소비항목의 '선생님 방문'은 선택재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3) 소비박탈유형에 따른 소비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집약

소비박탈유형에 따른 소비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표 5>에 집약시켜 보았다. 집락1은 '전범주충족형'으로서 “인천시의 평균적인 소비생활양식을 공유하고 일정수준의 삶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가계이다.

이에 비해 집락2와 집락3은 한 소비범주를 제외하고 모든 소비범주가 박탈되었으며, 집락4는 전소비범주가 박탈되었으면서 특히 일부 소비범주의 박탈이 특히 심각한 “인천시의 평균적인 소비생활양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일정수준이하의 삶의 기회를 누리는” 빈곤층 가계라고 할 수 있다. 집락2는 근로계층가계로서 “식료품 충족-기타 박탈형”이며, 집락3은 노인빈곤가계로서 “식료품 박탈심각-주거충족형”이며, 집락4는 불안정취업가계로서 “주거 박탈심각·식료품 박탈형”이다.

<표 5> 소비박탈유형별 소비특성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집락	소비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집락1	전범주 충족형	비자산소득 232만원, 자산 2억 7천만원, 연령 43세 전문대졸이상의 중산층지역 거주 중간계층
집락2	식료품 충족-기타 박탈형	비자산소득 93만원, 자산 2천만원, 연령 41세 고졸 수준의 빈곤층지역거주의 근로계층
집락3	식료품박탈심각-주거충족형	비자산소득 73만원, 자산 2천만원, 연령 50세 중졸미만의 빈곤층지역거주의 근로·하류·무직계층
집락4	주거박탈심각-식료품박탈형	비자산소득 73만원, 자산 천백만원, 연령 44세 고교중퇴의 빈곤층지역거주의 근로·하류·무직계층

〈표 6〉 도시가계의 필수소비항목의 소비박탈 순위의 국제비교

영국(전국, N=1,174)				한국(인천시, N=563)			
순위	필수소비항목	필수품 인지율(%)	소비박탈 수준(%)	순위	필수소비항목	소비박탈 수준(%)	영국 순위
1	따뜻한 난방	97	6	1	가1. 냉장고	2.3	12
2	실내전용화장실	96	1	2	가2. 가스레인지	3.0	
3	방습	96	10	3	식1. 결식안함	4.1	
4	전용욕실	94	2	4	가3. 장롱	6.6	
5	침대 / 1인	94	2	5	주1. 부업상하수도	9.1	
6	대중교통	88	9	6	식2. 쌀(일반미)	10.1	
7	방한코트	87	10	7	거1. 대중교통	11.2	7
8	하루 세끼 식사	82	7	8	교1. 참고서·도서 ^가	13.1	
9	독립 주거공간	79	6	9	교2. 학비체납안함 ^가	14.9	
10	사계절 신발 2켤레	78	15	10	가4. 세탁기	16.7	17
11	충분한 침실(10세 ^가)	77	17	11	의1. 추동내의 2+	18.5	
12	냉장고	77	2	12	거2. 하수처리	22.6	
13	장난감 ^가	71	5	13	주2. 방1칸 / 2인	23.6	11
14	카페트	70	3	14	보1. 만성환자 없음	23.6	
15	명절·생일 축하잔치	69	6	15	의2. 정장외출복	28.4	27
16	로우스트 고기 / 1주일	67	12	16	의3. 방한코트	28.8	14
17	세탁기	67	9	17	보2. 치과이용	28.8	
18	새 옷	64	13	18	활1. 사진기	31.6	
19	취미·여가활동	64	21	19	주3. 방수·방습	33.9	3
20	따뜻한 식사 두끼 / 1일(성인)	64	18	20	거3. 시장환경	35.0	
21	고기·생선 / 2일	63	17	21	교3. 학원·과외 ^가	37.0	
22	친구·가족 선물 / 1년	63	8	22	거4. 범죄 안전	40.5	
23	1주일 가족 휴가 / 1년	63	30	23	식3. 우유 등 / 매일	41.0	
24	운동기구·자전거	57	17	24	거5. 도로포장	41.9	
25	정원	55	10	25	가5. 책상·의자	41.9	
26	텔레비전	51	1	26	활2. 전축(오디오)	42.1	
27	정장외출복	48	20	27	주4. 전용화장실	43.5	2
28	전화	43	17	28	활3. 손님초대 / 석달	48.3	33
29	아동을 위한 외출 / 1주일 ^가	40	38	29	교4. 학습지구독 ^가	52.8	
30	드레싱가운	38	14	30	활4. 소풍·여행 / 년달	53.6	23
31	친구 간식 초대 / 2주일 ^가	37	34	31	활5. 신문구독	55.1	
32	밤외출 / 2주일	36	41	32	보3. 운동·등산용구	58.3	
33	친구 가족 모임 / 1달	32	32	33	의4. 메이커신발	60.4	
34	자동차	22	37	34	주5. 기름·가스난방	61.8	
35	담배한갑 / 2일	14	58	35	식4. 과일 / 매일	64.7	
				36	보4. 병원치료	66.4	
				37	교5. 선생님방문 ^가	66.9	
				38	식5. 고기·생선 / 매일	69.4	21
				39	의5. 메이커양말	70.7	
				40	보5. 운동(등산·탁구)	80.5	

^가 아동이 있는 가계에만 해당됨.

^가 교육소비항목은 N=335임.

자료(영국): Mack & Lansley(1985).

3. 영국의 필수품인지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필수소비항목 순위의 비교·평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국규모의 필수소비항목 지표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영국의 필수품인지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필수소비항목 순위의 비교·평가 비교해 보았다.

영국의 런던 위켄드 텔레비전(LWT)이 1983년 5월에 16세이상의 성인 1,17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조사결과를 <표 6>에서 보면, 먼저 연구자들이 제시한 35개 필수소비항목지표에 대해 영국국민들의 필수품인지율을 조사하여 인지율이 높은 것부터 순위를 파악하였다. 그 다음 각 필수소비항목에 대해 실제 소비박탈수준을 측정하였다. 영국의 필수품인지율을 기준으로 한 필수소비항목순위의 가장 큰 특징은 '1. 따뜻한 난방' '2. 실내전용화장실' '3. 방습' '4. 전용욕실' '5. 침대/1인'과 같이 1순위부터 5순위까지가 모두 주거 소비항목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필수품인지율을 기준으로 본 상위 다섯 소비항목의 실제 소비박탈수준은 매우 낮았다. 즉, '실내전용화장실', '전용욕실', '침대 1인'은 1~2%정도만이 박탈되어 있을 뿐 모두 충족될 정도로 최우선필수소비항목에 속했다(Mack and Lansley 1985).

인천시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도시가계의 필수품인지율은 측정되지 않았다. 다만 연구자들이 제시한 40개 필수소비항목에 대한 소비박탈 순위를 볼 때, '냉장고', '가스레인지'와 같은 가구집기의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가장 낮았다. 영국에서 필수품인지율이 2위와 3위에 해당되는 '전용화장실'과 '방수·방습'이 한국에서는 각각 43.5%, 33.9%정도나 박탈이 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주거박탈이 심각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보다 가구집기 소비항목의 소비박탈수준이 더 낮은 이유는 가구집기가 주거보다 우선적인 필수품이라기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고, 주거 소비항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차하려면 일정수준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VI. 결 론

지금까지 행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소비범주별 소비박탈수준간에 존재하는 유기적 관계를 집락분석을 통해 밝힘으로써 몇 가지 상이한 소비박탈유형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빈곤층 전체를 한 집단으로 소비박탈수준을 비교하는 것보다 현실의 복잡다단한 소비상태를 논리적으로 분석가능하게 해주었다.

둘째, 도시가계의 소비박탈유형은 "전범주 충족형(집락1)" "식료품 충족-기타 박탈형(집락2)" "식료품 박탈심각-주거 충족형(집락3)" "주거 박탈심각·식료품 박탈형(집락4)"으로 유형화되었다. "전범주 충족형(집락1)"은 인천시의 평균적인 소비생활양식을 공유하는 도시중산층가계의 소비유형이다. 이에 비해서 "식료품충족-기타 박탈형(집락2)"과 "식료품박탈심각-주거충족형(집락3)"은 번영과 박탈이 공존하는 유형이며 "주거 박탈심각-식료품 박탈형(집락4)"은 총체적으로 박탈된 유형으로서, 인천시의 평균적인 소비생활양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도시빈곤가계의 소비유형이다. 구체적으로 "식료품 충족-기타 박탈형(집락2)"은 빈곤층 중에서는 소득수준과 학력이 가장 높고 자산은 집락3과 비슷하며 고용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근로계층 가계로서 힘든 육체노동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영양수준은 유지하고 있었다. "식료품 박탈심각-주거충족형(집락3)"은 자산은 근로계층과 비슷하고 소득수준은 집락4정도로 낮은 노인가계로서 필수적인 주거수준은 유지하지만 힘든 육체노동을 할 나이가 지나기도 하고 절약적인 소비생활양식으로 인하여 식료품의 박탈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도시빈곤가계 중에서 가장 소비박탈수준이 높은 유형은 "주거 박탈심각-식료품박탈형(집락4)"으로서 소득과 자산이 가장 낮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할 여유가 없는 불안정 취업층가계이다.

셋째, 영국 국민이 사회적으로 필수품으로 인지하고 있는 최우선 필수소비항목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모두 주거소비항목이었으며, 실제 소비생활에서

거의 충족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인천시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도시가계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는 가구집기가 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충족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이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도출된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 같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도시빈곤가계를 위한 복지대책은 위에서 추출된 소비박탈유형에 따라 차별화되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절대빈곤층 바로 위 계층에 속한 "주거 박탈심각-식품박탈형(집락4)"의 불안정 취업층 가계를 위한 주택정책과 고용정책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식품박탈심각-주거충족형(집락3)"을 위해서는 빈곤노인을 위한 단체급식 또는 도시락 배달 등의 영양정책이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행해져야 한다.

둘째, 영국의 경우와 같이 필수품인지를 기준으로 국민이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국민필수품지표구성을 위한 연구가 전국적인 규모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박세일(1990). "경제정의의 의미 및 기본과제", 「경제정의와 사법」, 사법 연구회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
- 2) 박정희(1992). "도시 주거계층 연구: 분석모형의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3) 백옥인(1991). "계급, 계층별 생활양식",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회편, 『사회계층-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550-566.
- 4) _____(1994). "계급별 생활상태연구-부의 불평등과 소비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사회복지 장기발전 계획」.
- 6) 손상희(1993).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 연구」, 4(2): 51-72.
- 7) 윤정혜(1994). "한국가계의 경제적 복지평가", 「가족학논집」, 6: 151-183.
- 8) 윤정혜. 이기춘(1994). "도시빈곤가계의 상대적 박탈-소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3): 27-43.
- 9) 윤진호(1990). "한국의 불안정취업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10) 이정우. 조우현(1991). "임금과 근로자생활", 「노동경제논집」, 14.
- 11) 인천시 (1991a).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1991.8)".
- 12) _____(1991b). "행정구별 중산층지구(1991.10)".
- 13) 조홍식(1996). "한국 빈곤가족문제의 현황과 대책", 「빈곤가정 없는 21세기 한국」, 1996년도 가족관련학술단체협의회 학술대회논문집.
- 14) 홍두승. 김미희(1988). "도시중산층의 생활양식: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19, 485-533.
- 15) Bryant, K.(1991).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6) Cha, S. S.(1991). *Consumption Patterns of Poor Household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17) Davis, J. S.(1945). "Standards and Contents of Liv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5(1): 1-15.
- 18) Mack, J., and S. Lansley.(1985). *Poor Britain*. London: George Allyn and Unwin.
- 19) Townsend, P.(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 of Liv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20) _____(1987). "Deprivation." *Journal of Social Policy* 16(2): 125-146.
- 21) Walker, R.(1987). "Consensual Approaches to the Definition of Poverty: Towards an Alternative Methodology." *Journal of Social Policy* 16(2): 213-226.